

史的考察에 의한 『詩經』 「鄭風」의 ‘淫’에 대한 의미

안 춘 분*

국문초록

정나라는 주나라 평왕이 동천할 때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尊周의식을 보인 나라이다. 그러나 『論語』 「衛靈公」에서 孔子는 鄭聲을淫하다고 하였다. 그 후에 후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주자는 「鄭風」이淫하다고 하는 것은 「衛風」과 비교해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음란한 이유는 첫 번째, 양적인 측면에서 「衛風」은 음분한 시가 4분의 1인데 반하여 「鄭風」은 7분의 5라고 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시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衛風」은 회오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으나 「鄭風」은 회오의 조짐이 없는 점을 들어서 「鄭風」이 「衛風」보다 음분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에 안성유씨는 주자의 설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鄭風」에 대한 이러한 선유들의 글이 있으나 그래도 유독 鄭聲이淫하다고 하는 공자의 글의 의미를 확연하게 알 수 없으니, 「鄭風」의 시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시를 재해석 하고 사적고찰을 더하여 음의 의미를 상고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鄭風」을 正詩와 淫奔한 詩와 史的考察이 가능한 시로 구분하여 문사를 재해석하고 선인들의 해설을 참고로 하여 鄭聲이淫하다고 하는 근원을 상고하였다.

「鄭風」의 〈緇衣〉·〈羔裘〉·〈女曰鷄鳴〉·〈出其東門〉이 안성유씨에 의하여 옥 같은 시로 구분되었다. 「鄭風」에는 음분한 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풍과 비교하여 보아도 더욱 음분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정시에 가까운 시도 있었다. 다음으로 『詩經』 「鄭風」의 시 21개 중에 사적고찰이 가능한 시를 발췌하였다. 그 중에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은 정장공과 공숙단을 소재로 한 시이고, 〈청인(淸人)〉은 정문공이 정치를 잘못된 것을 노래한 시이고, 〈유녀동거(有女同車)〉는 문강의 단아함을 노래한 시이고, 〈산유부소(山有扶蘇)〉·〈택해(澤兮)〉·〈교동(狡童)〉은 모시가 정태자홀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이 시들의 문사를 재해석하고 재 해설하여 역사성을 고려한 결과 정장공·공숙단·정태자홀·문강에 대한 시의 표현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시와 역사적 고찰이 가능한 시를 뺀 나머지 〈준대로(遵大路)〉·〈건상(褰裳)〉·〈봉(丰)〉·〈동문지선(東門之曄)〉·〈풍우(風雨)〉·〈자금(子衿)〉·〈양지수(揚之水)〉·〈야유만초(野有蔓草)〉·〈진유(溱洧)〉는 ‘淫奔之詩’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이 「鄭風」 중 음분한 시로 구분된 시들은 일반인들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시이다. 그래서 잠시 「齊風」과 이 시들을 비교하여 본다면, 「鄭風」에 일반인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것을 음하다고 하나, 「齊風」이 제후와 부인의 불륜을 소재로 한 것보다 더淫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 시점에서 「齊風」이 음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鄭風」의淫한 정도가 그 극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박사 / choon2300@hanmail.net

다만 논자는 앞장에서 사적고찰을 통한 결과에 의하면 정장공과 공숙단과 정태자홀과 문강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오류가 「鄭風」에 바르지 않게 표현되었으므로 공자가 음하다고 하였다고 본다. 음하다고 하여서 단지 음란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간사하다는 ‘邪’나 도리에 어긋난다는 ‘不義’의 의미나 ‘不正’의 의미로 확장시켜 보아야 본래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본다.

[주제어] 『시경』, 「鄭風」, 淫, 思無邪, 正詩

— I 목 차 —

I. 序 論	III. 結 論
II. 「鄭風」의 ‘淫’에 대한 史的考察	

I. 序 論

鄭은 고을 이름이다. 본래 西都의 畿內인 咸林이라는 땅에 있었다. 宣王이 그 곳에 아우인 友에게 封贈하여 采地로 삼게 하였는데, 뒤에 幽王의 司徒가 되어 견용의 難에 사망하니, 이 사람이 桓公이다. 그의 아들인 武公掘突이 平王을 東都에 안정시키고 또한 司徒가 되어 虢과 檜라는 땅을 얻고는 마침내 그 봉읍을 옮기고 옛 칭호를 새 고을에 붙이니, 이것이 정나라이다.¹⁾ 정나라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시경』 「정풍」의 시는 21개이며, 「정풍」에 대하여 『論語』 「衛靈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나라 음악을 추방하여야 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니, 鄭聲은 淫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²⁾

鄭聲을 추방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주자는 정자의 말을 빌려서 말하기를 “정치에 대하여 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직 顏淵에게 이와 같이 알려져 대개 三代之 제도는 모두 시대에 따라서 손익을 하는 것이니……鄭聲과 佞人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상실하게 하니 그러므로 추방하여 멀리하는 것이다.”³⁾라고 하였다. 공자가 鄭聲은 음란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후인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鄭聲이 음란하다는 것이 소리나 가락이 음란하다는 것인지, 가사가 음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모두 음란하다는 것인지 알 수

1) 『詩經』 「鄭風」, 주자주: 鄭邑名, 本在西都畿內咸林之地. 宣王以封其弟友, 爲采地, 後爲幽王司徒, 而死於犬戎之難, 是爲桓公. 其子武公掘突定平王於東都, 亦爲司徒, 又得檜之地, 乃徙其封而施舊號於新邑, 是爲新鄭.

2) 『論語』 「衛靈公」: 子曰……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3) 『論語』 「衛靈公」 주자주: 程子曰問政, 多矣. 惟顏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 更相戒飭, 意蓋如此. 又曰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

없다. 그러나 일단 소리와 가락이라는 장르인 음악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고, 단지 『詩經』 「鄭風」의 문사로서 그 음란한 정도를 상고하여 공자가 과연 무슨 연고로 鄭聲이 음란하다고 했는가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孔子가 '正'과 '邪'가 바뀌는 상황을 염려하였다는 점에도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주자의 『詩經』 「鄭風」에 대한 견해를 보면, 주자는 「정풍」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위풍」과 비교해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위풍」은 음분한 시가 4분의 1인데 반하여 「정풍」은 7분의 5라는 면을 들어서 다시 경중을 가렸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시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위풍」에는 부끄러워 참회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많으나 「정풍」은 부끄러워 참회하는 조짐이 없는 점을 들어서 「정풍」이 「위풍」보다 음분하였다고 하였다.⁴⁾

그 뒤에 『시경』의 정풍에 대하여 화양범씨는 “음악이 음란한 것은 정나라와 위나라 음악이다. 가령 王道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鄭聲을 추방하면 곧 다스려질 것이다. 〈關雎〉는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악과 같지 않으니 그러므로 정나라 시는 음란한 극치에서 끝났다.”라고 하였다.⁵⁾ 화양범씨도 역시 정나라 음악은 음란하기 때문에 정나라 소리를 추방한다면 음란하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풍」과 鄭聲을 추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남」의 〈關雎〉시를 언급하였다. 〈關雎〉는 문왕과 태사를 찬미한 시인데, 가장 바른 시를 들어서 가장 음란하다고 하는 「정풍」을 비교하여 '正'과 '邪'를 대비하였고, 정나라 시는 亂의 극에서 끝났다고 혹평하였다.

그러나 『시경』의 「정풍」에 대한 안성유씨의 의견을 보면 “정나라 詩 중에 〈緇衣〉·〈羔裘〉·〈女曰鷄鳴〉·〈出其東門〉 등 수편이 있는 것은 곧 박석중의 옥이다……夫子가 어찌하여 유독 鄭聲으로 방비해야 한다고 하였는가.”⁶⁾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안성유씨는 「鄭風」의 대다수를 음풍이라고 하였고 주자의 의견대로 그것이 7분의 5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음분한 시로 구분되지 않는 보석 같은 시도 언급하였다. 주자가 각 시마다 註를 ‘淫奔之詩’라고 한 것이 시를 읽고 바른 情을 갖고자 하는 의도이며 鄭聲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공자가 鄭聲이 음란하니 배척해야 한다고 한 의도이며 주자의 설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鄭風」에 대한 이러한 선유들의 글이 있으나, 안성유씨가 의문을 갖은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淫한 시는 많이 있는 데 유독 鄭聲이淫하다고 하는 공자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논자는 「정풍」의 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시를 재해석하고 사적고찰을 더하여 '淫'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4) 『시경』 「정풍」 주자주: 鄭衛之樂, 皆爲淫聲. 然以詩考之, 衛詩三十有九, 而淫奔之詩才(纔)四之一, 鄭詩二十有一, 而淫奔之詩已不翅七之五, 衛猶爲男悅女之詞, 而鄭皆爲女惑男之語. 衛人猶多刺譏懲創之意, 而鄭人幾於蕩然無復羞愧悔悟之萌, 是則鄭聲之淫有甚於衛矣.

5) 『시경』 「정풍」, 華陽范氏曰: 樂之淫者鄭衛如有王者, 必放鄭聲然則亂. 關雎者莫如鄭衛, 故鄭詩終於亂之極焉.

6) 『시경』 「정풍」 安成劉氏曰: 鄭詩之有緇衣羔裘女曰鷄鳴出其東門數篇, 乃礫中之玉也……夫子何獨以鄭聲爲當放哉.

II. 「鄭風」의 ‘淫’에 대한 史的考察

『시경』에서 正詩의 대표는 〈關雎〉이다. 이시는 적극적인 배우자 선택 과정과 혼인과 화락한 혼인생활을 노래한 결혼계몽시⁷⁾라는 견해가 있다. 「정풍」의 〈緇衣〉·〈羔裘〉·〈女曰雞鳴〉·〈出其東門〉도 안정유씨에 의하여 옥 같은 시로 구분되었다. 정나라 풍이 비록 음란한 시가 많았다고 하나 그 중 몇 개의 시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제외한 諸風과 비교하여 음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正詩에 가깝다.

정시로 분류되는 시인 〈緇衣〉의 치의는 평상복을 말한다. 卿士가 왕에게 조현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사스러운 당에 돌아가서 입는 옷이다. 이 시는 군주와 신하의 정서가 아름답게 표현된 시이다. 그리고 〈고구(羔裘)〉를 보면, 이 시의 종장에 ‘羔裘晏兮 三英粲兮’라고 하였으니 염소 가죽 말끔하고도 풍성함이며(晏) 장식도(三英) 빛난다는 뜻이다. ‘三英粲兮’는 毛傳에 의하면 三德이라고 하였고, 정현은 彊克과 柔克과 正直이라고 하였으니, 모전에 위배되지도 않은 충실하고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⁸⁾ 이 〈고구〉는 제후의 덕을 읊은 시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여왈계명(女曰雞鳴)〉을 보면, 주자가 ‘安靜而和好’라고 하였으니, 그 화락하면서도 음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⁹⁾ 이 시로써 본다면 정나라의 풍속이 비록 음란하다고 말하지만, 서민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오히려 禮義를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업에 근면하게 종사하였고, 사스러운 宴樂에 붙잡히지 않았고, 서로 화락함을 편안하게 여겼고, 또 남편이 親賢하고 樂善하는 것을 도와서 그 덕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을 보니, 이것으로써 선왕의 혜택과 백성의 성품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다.¹⁰⁾ 이 시에서 부인이 현명하였기에 부부간에 화목하였고 지나친 데로 흐르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주자가 ‘和樂而不淫’이라고 하는 뜻이다. 다시 〈출기동문(出其東門)〉에 대한 주자의 설을 보면, “이때에 淫風이 크게 유행하였는데도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또한 스스로 좋아서 습속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믿을만하지 않겠는가.”¹¹⁾라고 하였으니, 이 시도 정나라의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백성이 집안을 잘 보전하려고 생각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정풍」의 정시를 다시 정리한다면, 〈緇衣〉는 정나라의 환공과 무공이 周왕실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이다. 그리고 〈羔裘〉는 조정에 충직한 신하가 나라의 보배로써 자리하고 있다는 시이다. 〈女曰雞鳴〉은 이 시에서 여인이 남편의 손님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라도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부인의 正道를 표현하였으니, 정나라 부부의 정이 안일에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出其東門〉은 남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인과 자락하겠다고 하는 안분지족하는 일반인의 도를 표현한 시이다. 이러한 시들로 보았을 때 정나라는 제후

7) 安秉均, 「雎鳩 및 三 象徵을 통하여 본 詩經 關雎詩 性格考」, 『시경연구』 1, 1999.

8) 李康範, 「鄭玄『모시정전』 석예와 시경학상의 공헌」, 『시경연구』 1, 1999.

9) 『시경』 「정풍」, 〈여왈계명(女曰雞鳴)〉, 주자주: 亦莫不安靜而和好, 其和樂而不淫, 可見矣.

10) 『시경』 「정풍」, 〈여왈계명(女曰雞鳴)〉, 慶源輔氏曰: 觀此詩, 則鄭國之俗雖曰淫亂, 然在下之人, 夫婦之間, 猶知禮義, 勤生業, 不昵於宴私, 相安於和樂. 而又能贊助其君子親賢樂善, 以輔成其德, 此可以觀先王之澤, 與民性之善矣.

11) 『시경』 「정풍」, 〈출기동문(出其東門)〉, 주자주: 是時, 淫風大行, 而其間, 乃有如此之人, 亦可謂能自好而不爲習俗所移矣. 羞惡之心, 人皆有之, 豈不信哉.

로서 왕실의 보호를 받았고, 신하는 충직하였으며, 가정에는 여인의 도가 살아있었고, 일반인도 安分自樂하는 道를 알고 있었으니, 상하좌우에 질서가 잡혀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正風에 가까운 시와 상반되게 「정풍」에는 음란한 시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정풍」의 일곱 번째 시인 〈준대로(邇大路)〉는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가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¹²⁾ 그리고 열세 번째 시인 〈견상(褰裳)〉에 대하여 역시 주자는 음분한 여인의 시라고 하였다.¹³⁾ 열네 번째 시인 〈봉(丰)〉에 대하여 모시는 혼탁함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¹⁴⁾ 열다섯 번째 시인 〈동문지선(東門之墀)〉을 모시와 주자가 다 같이 남녀의 정이 무례하고 혼탁함을 풍자한 시라고 보았다.¹⁵⁾ 그리고 열여섯 번째 시인 〈풍우(風雨)〉는 음분한 정도가 지나친 시이다. 풍우를 핑계로 삼아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사랑 노름을 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시이다.¹⁶⁾ 열일곱 번째 시인 〈자금(子衿)〉에 대하여 주자는 음분한 시라고 하였다.¹⁷⁾ 열여덟 번째 시인 〈양지수(揚之水)〉에 대하여 모시와 주자의 설이 다르다. 모시는 ‘〈揚之水〉는 훌륭한 신하가 없음을 민망히 여긴 것이요, 군자가 정태자홀이 忠臣과 良士가 없어 끝내 사망하였음을 민망히 여겨 이 시를 지은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주자는 음분한 사람들이 서로 한 말¹⁹⁾이라고 하였다. 스물 번째 시인 〈야유만초(野有蔓草)〉에 대하여 모시는 〈野有蔓草〉는 우연히 만날 때를 생각한 시라고 하여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라도 서로 혼인하는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읊은 시라고 하였다.²⁰⁾ 그리고 스물한 번째 시인 〈진유(溱洧)〉를 주자는 음분한 자의 자작시라고 하였다.²¹⁾ 이와 같이 「鄭風」 중 음분한 시로 구분된 시들은 일반인들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시이다.

1. 〈將仲子〉·〈叔于田〉·〈大叔于田〉의 史的考察

『시경』 「정풍」의 시는 21개 중에 〈縞衣〉·〈羔裘〉·〈女曰鷄鳴〉·〈出其東門〉은 앞장에서 正詩로 다루었다. 모시의 시관에 의하면 시의 사적고찰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청인(淸人)〉·〈유녀동거(有女同車)〉·〈산유부소(山有扶蘇)〉·〈탁혜(擗兮)〉이다. 그 중에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은 정장공과 공숙단을 소재로 한 시이고, 〈청인(淸人)〉은 정문공이 정치를 잘못된 것을 노래한 시이고, 〈유녀동거(有女同車)〉는 문강의 단아함을 노

12) 『시경』 「정풍」, 〈준대로〉, 주자주: 淫婦爲人所棄.

13) 『시경』 「정풍」, 〈견상〉, 주자주: 淫女語其所私者曰, 子惠然而思我, 則將褰裳而涉溱以從子, 子不我思, 則豈無他人之可從而必於子哉.

14) 『시경』 「정풍」, 〈봉〉, 毛序: 丰刺亂也.

15) 『시경』 「정풍」, 〈동문지선〉, 주자주: 識其所與淫者之居也.

『시경』 「정풍」, 〈동문지선〉, 毛序: 男女有不待禮而相奔者也.

16) 『시경』 「정풍」, 〈풍우〉, 주자주: 淫奔之女, 言當此之時, 見其所期之人而心悅也.

17) 『시경』 「정풍」, 〈자금〉, 주자주: 此亦淫奔之詩.

18) 『시경』 「정풍」, 〈양지수〉, 毛序: 揚之水閔無臣也. 君子閔忽之無忠臣良士, 終以死亡, 而作是詩也.

19) 『시경』 「정풍」, 〈양지수〉, 주자주: 淫者相謂.

20) 『시경』 「정풍」, 〈야유만초〉, 毛序: 野有蔓草思遇時也. 君子之澤不下流, 民窮於兵革, 男女失時, 思不期而會焉.

21) 『시경』 「정풍」, 〈진유〉, 주자주: 此詩淫奔者自敘之詞.

래한 시이고, 〈산유부소(山有扶蘇)〉·〈탁혜(藹兮)〉·〈교동(狡童)〉은 모시가 정태자홀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다만 〈揚之水〉는 주자와 모시가 다르게 보았으므로 사적고찰이 필요한 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의 정장공과 공숙단에 관하여 역사적 고찰을 한다면, 춘추시기에 鄭武公이 申 땅 출신인 武姜과 혼인하여서 장공과 공숙단을 낳은 일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무강은 맏이인 정장공을 미워하고 아우인 공숙단을 자애하였다. 이러한 편애로 인하여 공숙단은 방자하게 행동하였고 무강은 공숙단의 잘못을 방관하였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장공은 共叔段을 克하고 어머니 武姜을 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春秋』에는 “여름 5월에 정백이 段을 鄆에서 이겼다.”²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春秋左傳』, 隱公 元年(B.C.712)의 記史는 “당초에 鄭武公이 申國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가 武姜이다. 武姜이 莊公과 共叔段을 낳았는데 장공이 寤生하여 姜氏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름을 寤生이라고 하고서 그를 미워하였고, 共叔段을 사랑하여 그를 세우려고 자주 鄭武公에게 청하였으나 鄭武公이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莊公이 즉위함에 있어서 武姜이 共叔段을 위해 制邑을 청하니, 장공이 制邑은 지세가 험한 고을이어서 虢叔이 그 곳에서 죽었으니, 다른 고을을 청하신다면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京城을 청하니 그를 그곳에 살게 하고는 그 곳을 京城大叔이라고 하였다.”²³⁾ 이에 대하여 두예는 “경문에 鄭國이 토벌하였다고 칭하지 않고 鄭伯이라고 말한 것은 아우를 잘못 가르친 것을 나무란 뜻이다. 공숙단도 아우답지 못했기 때문에 아우라고 말하지 않아서, 鄭伯이 비록 동생 교육을 잘못하기는 하였으나 段도 역시 凶逆했음을 밝혔다.”²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春秋左傳』, 隱公 元年 己未 B.C.712의 기사를 보면, “『春秋』에 정백이 언에서 단을 克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단이 아우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우라고 말하지 않았고, 형제가 다툼 것이 마치 두 나라 임금이 교전한 것 같기 때문에 克이라고 한 것이다. 정백이라고 칭한 것은 동생을 잘못 가르친 것을 나무라고, 아울러 鄭莊公의 본심을 말한 것이다. 出奔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곤란함이 있기 때문이다.”²⁵⁾라고 하였다. 한편, 정장공에 대하여 여동래는 “나는 처음에 莊公을 천하에서 지극히 험한 사람이요, 끝에 장공을 천하에서 가장 졸렬한 자라고 여긴다.”²⁶⁾라고 완전 부정하는 평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春秋公羊傳』에서는 “克이란 무엇인가? 죽였다는 것이다. 죽였는데 왜 克이라고 썼는가? 정나라 군주인 정백의 악을 크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찌하여 鄭나라 군주인 백작의 악을 크게 한 것인가? 어머니가 (공숙단을) 즉위시키 고자 했으나 이미 살해되었으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라고 하였다. 『春秋公羊傳』에서도 이 사건

22) 『春秋』, 隱公 元年 己未 B.C.712: 夏五月, 鄭伯克段于鄆.

23) 『春秋左傳』, 隱公 元年 己未 B.C.712: 初, 鄭武公娶于申, 曰武姜, 生莊公及共叔段, 莊公寤生, 驚姜氏, 故名曰寤生, 遂惡之, 愛共叔段, 欲立之, 亟請於武公, 公不許, 及莊公即位, 爲之請制, 公曰, 制巖邑也, 虢叔死焉, 佗邑唯命, 請京, 使居之, 謂之京城大叔.

24) 『春秋左傳』, 隱公 元年 己未 B.C.712, 두예주: 不稱國討, 而言鄭伯, 譏失教也, 段不弟, 故不言弟, 明鄭伯雖失教, 而段亦凶逆.

25) 『春秋左傳』, 隱公 元年 己未 B.C.712: 書曰, 鄭伯克段于鄆, 段不弟, 故不言弟, 如二君, 故曰克, 稱鄭伯, 譏失教也, 謂之鄭志, 不言出奔, 難之也.

26) 『동래박의』, 隱公 元年 己未 B.C.712: 吾始以莊公爲天下之至險, 終以莊公爲天下之至拙.

27) 『春秋公羊傳』, 隱公 元年 己未 B.C.712: 克之者何, 殺之也, 殺之則曷爲謂之克, 大鄭伯之惡也, 曷爲大鄭伯之惡, 母欲立之, 已殺之, 如勿與而已矣.

에 대하여 여동래와 같이 장공의 행위를 악으로 몰아 세웠다. 이러한 평가에도 정장공이 꼭 졸렬한 인물만은 아니라는 점이 『春秋』, 隱公 10년(B.C.713)에 보이기 때문에 정장공을 악한 자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 『春秋』, 경문에 “6월 壬戌일에 隱公이 宋나라 군대를 관에서 패배시키고서 辛未일에 郕邑을 취하고, 辛巳일에 팽읍을 취하였다.”²⁸⁾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한 『春秋左傳』, 隱公10년(B.C.713)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6월 戊申일에 은공이 老桃에서 齊侯·鄭伯과 회견하였다. 壬戌일에 은공이 송나라 군대를 관에서 배치시켰다. 庚午일에 정나라 군대가 郕에 진입하여 辛未일에 노나라에 주고, 庚辰일에 정나라 군대가 防에 진입하여 辛巳일에 노나라에 주었다. 이에 대해 군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鄭莊公이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했다고 이를 수 있다. 천왕의 명으로 조현하지 않는 제후를 토벌하였으면서도 그 토지를 탐하지 않고 그 땅으로 王爵을 위로하였으니, 정치의 대체를 얻었다고 하겠다.’²⁹⁾라고 하였다.

비록 鄭莊公이 동생인 공숙단을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정장공은 공평무사하고 대의명분 있는 인물이었다. 鄭伯이 약속한 기일에 오지 않았으므로 隱公이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서 宋나라 군대를 패배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鄭伯은 홀로 군대를 거느리고 자주 진격하려고 郕과 防에 진입하였고, 진입하여서는 자기가 점유하지 않고 魯나라에게 취하도록 하였다. 功을 上爵에게 미루고 스스로 양보하여 취하지 않고 軍實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經에 ‘魯나라가 취하였다.’라고만 기록하여 鄭나라의 뜻을 이루어 주었으니, 이는 鄭伯의 처사를 훌륭하다고 여긴 것이다.³⁰⁾ 정장공이 동생인 공숙단에게는 완악한 형이었으나 춘추초기에 정나라는 절도 있는 上下相分の 義를 실행한 나라였고 그 중심에 정장공이 있었다. 그래서 두 예와 좌구명은 이 사건을 가지고 정장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부분적으로 정장공이 아우와의 다툼에서 완악한 인물로 평가받은 것은 형과 아우의 관계에서는 형의 권함과 의무가 크기 때문에 형의 잘못이 크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莊公이 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질책한 것이다. B.C 712년의 기사로 보면 형인 정장공을 졸렬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장공이 동생을 상대함에 속임수를 행하였다면 그 배후에 武姜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감추어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춘추』의 필법중의 ‘志而晦’의 용법이다. 춘추의 필법은 형과 아우가 다툼이 있을 때는 아우를 나무라는 것이고, 부모와 자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제를 나무라는 것이다.³¹⁾ 그러나 그 문장에 표현된 내용이 진리를 대표하지는 않는 것이다. 먼저 <장중자(將仲子)>의 시구를 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28) 『春秋』, 隱公10년 戊辰 B.C.713 : 六月, 壬戌, 公敗宋師于菅, 辛未, 取郕, 辛巳, 取防.

29) 『春秋左傳』, 隱公10년 戊辰 B.C.713 : 六月戊申, 公會齊侯鄭伯于老桃, 壬戌, 公敗宋師于菅, 庚午, 鄭師入郕 申未, 歸于我, 庚辰, 鄭師入防, 辛巳, 歸于我, 君子謂鄭莊公於是乎可謂正矣, 以王命討不庭, 不貪其土, 以勞王爵 正之體也.

30) 『春秋左傳』, 隱公10년 戊辰 B.C.713, 두예주 : 鄭伯後期 而公獨敗宋師, 故鄭頻獨進兵以入郕防, 入而不有, 命魯取之, 推功上爵, 讓以自替, 不有其實, 故經但書魯取, 以成鄭志, 善之也.

31) 이상 정장공에 대한 내용은 안춘분, 「『춘추』의 다양한 비판견해를 통해본 춘추시대정신」, 『동양철학연구』 65, 동양철학연구회, 2011에 수록된 ‘정장공의 존주와 신하인 영고숙의 한시적인 순효’에서 다른 내용임.

부디 仲子(중자)는 내 영역을 넘보지 말고 이 몸이 심은 버드나무 꺾지 마시오
 어찌 내 그것을 아끼리오 부모님 두려워서라네
 아우(仲)를 품을 수 있으나 부모의 말씀 역시 두렵다네³²⁾

蒲田鄭氏가 ‘이는 淫奔한 자의 글이다.’라고 하였다.³³⁾ 이 시의 해설을 상고하면, 모서에는 “莊公을 풍자한 시이다. 그 어머니가 아우를 편애함을 이겨내지 못하여 그 아우를 해쳤다. 아우인 共叔이 도리를 잃었는데 莊公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祭仲이 이를 간하였으나 공이 듣지 아니하여, 작은 일을 참지 못하여 큰 난리에 이른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그리고 蒲田鄭氏와 慶源輔氏는 ‘淫奔之詩’라고 하였다. 이 시가 장공의 입장에서 읊어진 시라면 여기서 중자는 아우인 공숙단을 지칭한다고 보아야한다. 정나라는 환공으로부터 시작된다. 환공의 아들 武公이 武姜과 혼인하여 장공과 공숙단을 낳았다. 무강이 장공을 미워하고 공숙단을 편애하니 장공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숙단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겼다. 將仲子(중자)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장공의 입장에서 지은 시로 보인다. 다음으로 〈숙우전(叔于田)〉의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숙단이 사냥을 나가니 거리(巷)엔 사는 사람 없구나
 어찌 사는 사람이 없으리오마는 숙단 처럼
 참말로 아름답고도 인자(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³⁵⁾

공숙단이 의롭지 못하면서 대중의 민심을 얻었으나, 國人들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공숙단이 나가서 사냥하면 사람들이 사는 거리가 사는 사람이 없는 듯하니, 이는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비록 사는 사람이 있으나 공숙단과 같이 아름답고 또 인자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³⁶⁾ 이 시에서 ‘不如叔也의 洵美且好(숙단과 같이 참말로 아름답고 또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不如叔也의 洵美且武(숙단과 같이 참말로 아름답고 또 호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라고 二章과 三章에서 거듭 공숙단을 찬미하였다. 모서에는 “〈叔于田〉은 莊公을 풍자한 시이다. 共叔段이 도읍(京)에 거처할 때에 갑옷을 수선하고 군대를 다스려 사냥하러 나가니, 정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여 그에게 귀의하였다.”³⁷⁾라고 하였다. 이 시는 장공과 공숙단이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숙단을 지지하는 민심을 드러낸 시로 보인다. 장공이 적자이고 공숙단은 차자이다. 『춘추』 은공 원년 “夏五月 정백이 공숙단을 언땅에서 극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의 평가는 장공과 공숙단의 전투는 형제가 모두 잘

32) 『시경』 「정풍」, 〈장중자(將仲子)〉: 將仲子兮無踰我里, 無折我樹杞. 豈敢愛之? 畏我父母. 仲可懷也, 父母之言亦可畏也.

33) 『시경』 「정풍」, 〈장중자(將仲子)〉, 주자주: 蒲田鄭氏曰, 此淫奔者之辭.

34) 『시경』 「정풍」, 〈장중자(將仲子)〉, 毛序: 將仲子刺莊公也. 不勝其母, 以害其弟. 弟叔失道而公弗制, 祭仲諫而公弗聽, 小不忍以致大亂焉.

35) 『시경』 「정풍」, 〈숙우전(叔于田)〉: 叔于田, 巷無居人. 豈無居人, 不如叔也, 洵美且仁.

36) 『시경』 「정풍」, 〈숙우전(叔于田)〉, 주자주: 段不義而得衆, 國人愛之, 故作此詩. 言叔出而田, 則所居之巷, 若無居人矣, 非實無居人也. 雖有而不如叔之美且仁. 是以若無人耳.

37) 『시경』 「정풍」, 〈숙우전(叔于田)〉, 毛序: 叔于田刺莊公也. 叔處於京, 繕甲治兵, 以出于田, 國人說而歸之,

못하였다고 한다. 『춘추좌전』의 기사로 보면 장공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인들은 장공이 동생을 다스리지 못한 잘못을 크게 다루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비곡직을 밝히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서 치밀하게 상고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 시는 공숙단의 인품이 아름답고 인자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공숙단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읊은 시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大)叔于田〉의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公叔段 사냥하려니 네 마리가 끄는 말(乘馬)타시는구나
고삐 잡기를 실오라기 잡듯하니 곁마들(驂馬) 신나게 달리네
숙단이 늪지대에 있으니 화염이 확 일어나는구나
옷통 벗고(褫楊) 맨손에 범 때려잡아 公所에 바치시네
부디 숙단은 이런 일에 익숙치(狃) 말라 몸 상할까 걱정되노라³⁸⁾

나라 사람들이 경계하기를 “부디 숙단은 이런 일을 익히지 말라. 몸 상할까 걱정되노라.”라고 하였으니, 숙단이 재주가 많고 용맹스러워서 鄭나라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³⁹⁾ 〈大叔于田〉의 시 해설을 보면, 毛序에서는 “〈大叔于田〉은 莊公을 풍자한 시이다. 共叔段이 재주가 많고 용맹스러우나 義롭지 못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⁴⁰⁾라고 하였다. 그러나 〈숙우전〉과 〈대숙우전〉에는 ‘叔’이라고 하여 공숙단을 지칭하는 이름은 나오나 장공에 대한 언급은 공숙단이 사냥하여 그 물건을 公所에 바친다고 했을 뿐이다. 〈대숙우전〉은 공숙단을 좋아하는 이가 공숙단이 사냥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서 혹시 사냥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앓을까 염려하는 情을 담은 詩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2. 〈淸人〉·〈有女同車〉의 史的考察

춘추시대 역사에서 볼 때 시의 사용은 춘추예악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춘추좌전』 양공 29년에 오나라 계탈이 노나라를 방문하자 노나라 대부는 주나라 음악을 듣게 하였고, 그를 위해 『시경』의 시를 부르게 하였다.⁴¹⁾ 역사적으로 보면, 시는 정치 문화 예술 방면에 다양한 용도를 발휘한 것이다. 이에 먼저 〈淸人(淸人)〉의 역사적 고찰을 보고자 함에 시의 초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읍 사람 彭塋에 있으니 무장한 말 네 필 쉬지 않고 달리네
두 자루 창 번쩍거리는 장식으로 河水 가에서 노니는(翱翔)구나⁴²⁾

38) 『시경』 「정풍」, 〈(대)숙우전(大)叔于田〉: 叔于田, 乘乘馬. 執轡如組, 兩驂如舞. 叔在藪, 火烈具舉. 褫楊暴虎, 獻于公所. 將叔無狃, 戒其傷女.

39) 『시경』 「정풍」, 〈(대)숙우전(大)叔于田〉, 주자주: 國人戒之曰, 請叔無習此事. 恐其或傷汝也, 蓋叔多材好勇, 而鄭人愛之如此.

40) 『시경』 「정풍」, 〈(대)숙우전(大)叔于田〉, 毛序: 大叔于田刺莊公也. 叔多才而好勇, 不義而得衆也.

41) 진래 지음, 진성수·고재석 옮김, 『중국고대사상문화의 이해』- 춘추시대의 종교 윤리와 사회사상- 성균관대학교유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 학술원, 2008, 331쪽.

정문공이 고국을 미워하여, 청읍의 군대를 거느리고 적을 하수가에서 막게 하였으나 오랫동안 부르지 않자 군사들이 흩어져 돌아가니, 정나라 사람들이 이 때문에 이 시를 읊었다. 그 군대가 나간 지가 오래됨에 일이 없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단지 서로 어울려 유희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그 형세가 반드시 궤산(潰散)함에 이르고야 말 것임을 말한다.⁴³⁾

청읍 사람이 消땅에 있으니 무장한 말 네 필 호반도 하여라
두 자루 창 앙상한 갈고리로 하수가에서 노니는(逍遙)구나⁴⁴⁾

이 시에 대하여 여동래는 “군대가 나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여 무료하자, 우선 유희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삼으니, 반드시 무너질 형세임을 말하였다. 이미 무너졌는데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니, 그 말이 깊고 그情有 위태롭다.”⁴⁵⁾라고 하였다. 호씨는 “인군이 한 나라의 명분과 충애를 함부로 하여 생사와 여탈을 오직 자신이 제어하니, 가령 고국이 불충한 죄가 이미 드러났다면 조사하여 죽이는 것이 옳을 것이요, 상황(情狀)을 밝힐 수 없으면 내쫓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그 재주를 아깝다고 여겨 예로써 대우하는 것 또한 옳을 것이거늘, 어찌 병권을 빌려주고 국경 근처에 버려두어서 군사들이 이산하는 것을 좌시하고 걱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春秋』에 ‘정나라가 그 군대를 버렸다고 썼으니, 그 심하게 꾸짖은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⁶⁾ 모시는 “〈淸人〉은 文公을 풍자한 시이다. 高克이 이익을 좋아하고 그 군주를 돌보지 않으니, 문공이 그를 미워하여 멀리하려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다. 이에 高克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에서 오랑캐를 막게 하려고 군사들을 주둔시켜 하수가에서 翱翔(날개를 펴고 빙빙돌다)하게 하였는데, 오래도록 부르지 않자, 군사들이 해산하여 돌아가니 高克은 陳나라로 망명하였다. 公子가 평소 高克이 나아가기를 예로써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文公이 물리치기를 道로써 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군대를 멸망시키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이 시에 대한 기사가 『春秋』에 보인다. 이 시의 배경은 『春秋』 閔公 2년의 경문에 “정나라가 그 군대를 버렸다.”⁴⁸⁾고 하였는데, 고국이 그 일을 기록하여 魯나라에 통고한 것이다.⁴⁹⁾ 鄭인이 고국을 미워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황하가에 주둔하게 하고는 오래도록 부르지 않으니, 군대가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므로

42) 『시경』 「정풍」, 〈청인(淸人)〉: 淸人在彭, 駟介旁旁. 二矛重英, 河上乎翱翔.

43) 『시경』 「정풍」, 〈청인(淸人)〉, 주자주: 鄭文公惡高克, 使將淸邑之兵, 禦狄于河上, 久而不召, 師散而歸, 鄭人爲之賦此詩. 言其師出之久, 無事而不得歸, 但相與遊戲如此, 其勢必至於潰散而後已爾.

44) 『시경』 「정풍」, 〈청인(淸人)〉: 淸人在消, 駟介廕廕. 二矛重喬, 河上乎逍遙.

45) 『시경』 「정풍」, 〈청인(淸人)〉, 東萊呂氏曰: 言師久而不歸, 無所聊賴, 姑遊戲以自樂, 必潰之勢也. 不言已潰而言將潰, 其詞深, 其情危矣.

46) 『시경』 「정풍」, 〈청인(淸人)〉, 胡氏曰: 人君擅一國之名寵, 生殺予奪, 惟我所制耳, 使高克不臣之罪已著, 按而誅之可也. 情狀未明, 黜而退之可也. 愛惜其才, 以禮馭之亦可也, 烏可假以兵權, 委諸竟(境)上, 坐視其離散而莫之卹乎! 春秋書曰鄭棄其師, 其責之深矣.

47) 『시경』 「정풍」, 〈청인(淸人)〉, 毛序: 淸人刺文公也. 高克好利而不顧其君, 文公惡而欲遠之, 不能. 使高克將兵, 而禦狄于竟陳其師旅, 翱翔河上, 久而不召, 衆散而歸, 高克奔陳. 公子素惡高克進之不以禮, 文公退之不以道, 危國亡師之本, 故作是詩也.

48) 『春秋』 閔公 2년: 鄭棄其師.

49) 『春秋』 閔公 2년 두에주: 高克狀其事以告魯也.

고극도 진나라로 도망갔다. 鄭人이 그를 위하여 '청인'을 지었다.⁵⁰⁾ 문공이 신하를 정당한 도리로 물리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군대를 잃은 張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 풍자한 것이다.⁵¹⁾

『시경』·「정풍」, 〈청인(淸人)〉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자루 창 번쩍거리는 장식으로 河水 가에서 노니는(翱翔)구나
두 자루 창 양상한 창 갈고리로 하수가에서 노니는(逍遙)구나⁵²⁾

처음에는 창 장식 번쩍거렸으나 시간이 지나자 장식은 낡아서 해져버렸고 창 갈고리만 양상하게 남아 있으니, 이로써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모서에서는 이시가 文公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문공의 신하인 高克이 불충하자 문공이 그를 미워하여 전방(하수가)으로 보내서 세월만 보내도록 방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자는 불충한 신하는 재주를 가상하게 여겨 등용할 것이 아니라면 죽이든지 추방할 일이지 군사와 함께 무위도식하게 한 것은 문공의 정치가 무도했다는 견해이다. 이 시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이어서 〈有女同車〉에 대한 사적 배경을 고찰해 보면, 『春秋公羊傳』에서는 정태자홀이 적자의 자격을 회복한 것이 마땅한 일이며 정을 회복한 것이라고 하고, 태자 홀이 정나라로 복귀하여 나라를 경영하게 된 것도 마땅하다는 입장만을 취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두예의 주석은 '忽이 실로 임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復位한 例로 글을 만든 것이다. 世子라고 칭한 것은忽이 태자로서 어머니의 총애와 祭仲의 원조를 받았으며, 齊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이니, 이것이 태자의 훌륭한 점이다. 그러나 깨끗한 절조만을 지켜 대국의 원조를 잃었고, 세 공자의 강성함을 알면서도 祭仲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작은 췌이나 닭고 작은 행실이나 깨끗이 하여 필부의 仁만을 따르고 社稷의 大計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君子가 '자신을 위한 계획은 좋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이익은 헤아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버 莊公이 죽은 뒤에 스스로 임금의 위엄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鄭人 들도 그를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출분할 때에는 낮추어 이름을 기록해 통고하였고, 그가 들어올 때에는 태자의 禮로써 맞이하고, '世子 忽'이라고 기록하여 통고하였다. 처음에는 축출되고 끝내는 살해되었으니 세 공자가 번갈아 임금이 되어 鄭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은 실로忽에게서 연유한 것이다."⁵³⁾라고 복위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좌구명이 자신을 위한 계획은 좋았다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였고 정태자홀이 정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여동래는 태자홀에 대하여 "대개 홀은 득의했을 때는 기세가 넘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보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보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실의했을 때

50) 『春秋左傳』 閔公 2년 : 鄭人惡高克, 使師師次于河上, 久而弗召, 師潰而歸, 高克奔陳. 鄭人爲之賦淸人.

51) 『春秋左傳』 閔公 2년 두예주 : 刺文公退臣不以道 危國亡師之本.

52) 『시경』 「정풍」, 〈청인(淸人)〉 : 二矛重英, 河上乎翱翔. 二矛重喬, 河上乎逍遙.

53) 『春秋』, 桓公 15年 갑신 B.C.697, 두예주 : 忽實居君位 故今還以復其位之例 爲文也 稱世子者 忽爲大子 有母氏之寵 宗卿之援 有功於諸侯 此大子之盛者也 而守介節 以失大國之助 知三公子之疆 不從祭仲之言 修小善 潔小行 從匹夫之仁 忘社稷之大計 故君子謂之善自爲謀 言不能謀國也 父卒而不能自君 鄭人亦不君之 出則降名以赴 入則逆以大子之禮 始於見逐 終於見殺 三公子更立 亂鄭國者 實忽之由.

는 기세가 다 말라 없어져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왜소함을 이기지 못한다.”⁵⁴⁾라고 하면서 태자홀의 인간됨이 경솔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두 정나라 홀이 청혼을 거절하여 큰 나라에 의지해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지 못한 것을 허물하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홀이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팽생의 재앙은 노나라가 아닌 정나라에서 생겼을 것이다. 어찌 노나라에 재앙이 된 것이 정나라에는 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홀이 청혼을 거절한 것은 사실 크게 비난할 일이 아니다.”⁵⁵⁾라고 홀의 혼인관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동래는 태자홀이 청혼을 사양한 것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홀의 혼인관으로 인하여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하는 방법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朱申이 “『시경』『鄭風』有女同車序에서 鄭人是 忽이 제나라와 혼인하지 않았다가 끝내 강대한 외국의 원조가 없어서 축출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좌전』에서는 자신을 위한 계획은 훌륭하였다고 하였다. 채중이 말하기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현재 임금께서는 사랑하는 여자가 많으니, 태자께서는 강대한 외원이 없으면 아마도 임금이 되지 못할 것이고, 세 공자가 모두 임금이 될 가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詩序의 말과 실제로 서로 보완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성패를 가지고 시비를 논하였고, 오직 여동래만이 ‘홀이 혼인을 사절한 것은 잘한 일이고 미약해진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가령 그가 사절하지 않고 文姜을 아내로 맞았다면 拉幹(납간: 요절)의 禍가 魯桓公에게 있지 않고 鄭忽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⁵⁶⁾라고 여동래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정태자홀이 제나라 문강과의 결혼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문강이 이후에 노나라 환공과 혼인하게 되어 결국은 환공이 요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공과 문강의 관계이지 정태자 홀과 문강의 관계를 추론하여 비평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다만 정나라의 태자로서 강대국인 제나라와의 혼사를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거절한 것이 자신의 신념과 정신세계에 충실한 선택이었다는 점과는 달리 자신의 국가적 신분에는 소홀하였다는 평가가 가당할 것이다.⁵⁷⁾ 계속하여 〈유녀동거(有女同車)〉의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레를 함께 탄 여인 있으니 안색이 무궁화꽃 같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니(翱翔) 장신구 초려(瓊琚)함이로다
저 미모의 맹강이여 참으로 아름답고 또 단아하구나⁵⁸⁾

54) 『동래박의』, 桓公 15年 갑신 B.C.697: 蓋忽之爲人 得志則氣盈 而自視其身 不勝其大 人稍慢之 己不能平 失志則氣涸 而自視其身 不勝其小.

55) 『동래박의』, 桓公 15年 갑신 B.C.697: 世皆咎鄭忽之辭婚 不能依大國以爲固殆非也 使忽不辭 則彭生之禍 不在於魯而在鄭矣 豈有禍魯而福鄭者哉 然則忽之辭婚 固亦未可厚非也.

56) 『春秋左傳詳節句解』, 桓公 15年 갑신 B.C.697: 愚按 詩鄭國風 有女同車序云 鄭人刺忽之不昏于齊 卒以無大國之助 至於見逐 又按左氏曰 善自爲謀 其載祭仲之言曰 必取之 君多內寵 子無大援 將不立 三公子皆君也 與詩序之言 實相表裏 然此皆以成敗論是非也 惟東萊云 忽得之於辭昏而失之於微弱 使其不辭而娶文姜 則拉幹之禍 不在魯而在鄭 誠哉是言也.

57) 안춘분, 「『춘추』의 다양한 비판견해를 통해본 춘추시대정신」, 『동양철학연구』 65, 동양철학연구회, 2011에 수록된 ‘鄭太子忽의 反正名’에서 다른 내용임.

58) 『시경』 「정풍」, 〈유녀동거(有女同車)〉: 有女同車, 顏如舜華. 將翱將翔, 佩玉瓊琚. 彼美孟姜, 洵美且都.

이는 아마도 역시 淫奔한 시인 듯하다. 수레를 함께 타고 간 여인이 그 미색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또 감탄하기를 '저 아름다운 孟姜이여! 진실로 아름답고도 단아하다.'고 하였다.⁵⁹⁾

동행하는 여인 있으니 안색이 무궁화꽃 처럼 빛나는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니(翱翔) 장신구 지령지령(將將)거리네
저 미모의 맹강이여 덕음을 잊지 못하겠노라⁶⁰⁾

이 시에 대하여 경원보씨가 "덕음이라고 말한 것은 이 역시 〈日月〉이라는 시의 덕음과 같은 부류이다. 세상이 쇠미하고 도가 낮아져 情을 주창하여 욕심을 방자하게 하니,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여긴 자가 많다."라고 하였다.⁶¹⁾ 이 〈有女同車〉는 鄭太子忽을 풍자한 시이다. 鄭나라 사람들이 太子忽이 齊나라와 혼인하지 않은 것을 풍자하였다. 태자홀이 일찍이 齊나라에 功이 있었으므로 齊侯가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청하였는데, 제나라 여인이 현숙하였는데도 (태자홀이) 혼인하지 않았다가 마침내 강대국의 원조가 없게 되어 축출을 당함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國人이 풍자하였다.⁶²⁾

鄭太子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나라 태자忽은 태자突·태자廡와 함께 번갈아 정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나라의 복잡한 정국은 정태자 홀로 인해서 발생했다. 한편, 정태자 홀에 대한 평가는 권력에 굴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정략결혼이 만연하는 시대에 자신만의 자유로운 혼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春秋左傳』 桓公 6年(B.C.706)의 鄭太子忽에 대한 기사를 보면, 桓公이 제나라와 혼인하기 전에 제후가 문강을 정나라 태자 홀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태자 홀이 사양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태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각각 합당한 짝이 있다. 제나라는 강대하니 강대한 나라의 딸은 나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⁶³⁾

그 후 桓公 15年 갑신 B.C.697 경문에 "5월에 鄭伯突이 蔡나라로 도망가니, 鄭世子忽이 다시 鄭나라로 돌아갔다."⁶⁴⁾라고 하였다. 또 『春秋』 경문에 "鄭伯突出奔蔡 鄭世子忽復歸于鄭"이라고 하였다. 『春秋公羊傳』에서는 공자가 '世子'라고 하고 '歸'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월에 정나라 군주인 백작 돌이 채나라로 달아났다. 돌이라는 이름을 왜 기록했는가? 正嫡자인 태자홀의 지위를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정나라의 세자 忽이 다시 정나라로 돌아갔다. 그를 세자라고 일컫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적자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왜 어떤 것을 '歸'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59) 『시경』 「정풍」, 〈유녀동거(有女同車)〉, 주자주: 此疑亦淫奔之詩. 言所與同車之女, 其美如此, 而又歎之曰, 彼美色之孟姜, 信美矣而又都也.

60) 『시경』 「정풍」, 〈유녀동거(有女同車)〉: 有女同行, 顏如舜英. 將翱翔將, 佩玉將將. 彼美孟姜, 德音不忘.

61) 『시경』 「정풍」, 〈유녀동거(有女同車)〉, 慶源輔氏曰: 所謂德音, 是亦日月詩之德音類也. 世衰道降, 徇情肆欲, 所美非美者多矣.

62) 『시경』 「정풍」, 〈유녀동거(有女同車)〉, 毛序: 有女同車刺忽也. 鄭人刺忽之不昏于齊. 太子忽嘗有功於齊, 齊侯請妻之, 齊女賢而不取, 卒以無大國之助, 至於見逐, 故國人刺之.

63) 『春秋左傳』, 桓公 6年 乙亥 B.C.706: 公之未昏於齊也, 齊侯欲以文姜妻鄭太子忽, 太子忽辭. 人問其故, 太子曰人各有耦, 齊大, 非吾耦也.

64) 『春秋』, 桓公 15年 갑신 B.C.697: 五月鄭伯突出奔蔡, 鄭世子忽復歸于鄭.

‘복귀’라고 말하는가? ‘복귀’란 출국할 때는 죄악이 있었는데 귀국할 때에는 죄악이 없어진 것이다.⁶⁵⁾

〈유녀동거〉에 대하여 이시대의 학자도 맹강은 강씨네 집안의 큰 딸이니 아내가 예뻐서 장인장모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⁶⁶⁾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강은 양공이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음분하였고 양공의 이복동생인 소백이 집권하여 강대하게 된 상황에서 그 소백에게 들어갔다고 『춘추』에 부인강씨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⁶⁷⁾〈유녀동거〉에서는 무궁화를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고상하고 단아한 꽃이라고 하였다. 맹강의 미색이 이 시에서는 무궁화에 비유되었다. 모시는 이 시가 태자홀이 맹강과 혼인하지 않아서 제나라로부터 원조를 구하지 못하여 끝까지 임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풍자하였다고 하였다. 주자는 이 시는 아마도 역시 ‘淫奔之詩’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맹강의 미모를 찬미하였고 맹강을 현숙하다고 하였다. 경원보씨는 이 시의 덕음이 「패풍」의 〈日月〉에서 장강의 덕음과 같은 종류라고 하였다. 맹강은 문강이다. 주자가 아마도 음분한 시일 것이라고 한 것은 정태자홀에게 시집을 수도 있었던 맹강이 후에 노나라 환공의 부인이 되었으나 음분하여서 제나라에서 환공을 죽음으로 인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맹강의 미색을 단아하다고 한 것이 결국 단아한 것이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정나라 시가 음란하다는 이유를 주자는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먼저 정을 표현하였다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 본다면 「정풍」의 시에서 문강의 음분한 것을 음분하지 않다고 읊은 점과 아름답지도 않은 공숙단을 아름답게 찬양한 점 등으로써 그 ‘淫’의 의미를 샅되고도 不正하였다는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다.

3. 〈山有扶蘇〉·〈薤兮〉·〈狡童〉의 史的考察

사적 고찰이 가능한 시 중에 〈山有扶蘇〉는 鄭太子忽에 관한 시이고 〈薤兮〉·〈狡童〉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산유부소(山有扶蘇)〉의 초장의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에는 자그마한 나무(扶蘇)가 있고 습지에는 연꽃이 있거늘
멋진 녀석(子都) 보이지 않고 이내 미치광이를 만나는구나⁶⁸⁾

이 시에서는 음탕한 여인이 그 사사롭게 사귀는 자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산에는 扶蘇가 있고, 습지에는 연꽃이 있거늘 지금 내가 마침내 子都를 만나지 못하고 이 狂人을 만남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⁶⁹⁾ 이 시

65) 『春秋公羊傳』, 桓公 15年 閏辛 B.C.697 : 五月 鄭伯突出奔蔡 突何以名 奪正也 鄭世子忽復歸于鄭 其稱世子何 復正也 曷爲或言歸 或言復歸 復歸者 出惡 歸無惡.

66) 서정기 역주, 『새시대를 위한 시경』, 살림터, 2001, 233쪽.

67) 원형갑, 『시경과 성』, 한림원, 1994, 355쪽.

68) 『시경』 「정풍」, 〈산유부소(山有扶蘇)〉: 山有扶蘇, 隰有荷華, 不見子都, 乃見狂且!

69) 『시경』 「정풍」, 〈산유부소(山有扶蘇)〉, 주자주: 淫女戲其所私者曰, 山則有扶蘇矣, 濕則有荷華矣, 今乃不見子都, 而見此狂人, 何哉?

의 시 해설을 상고해 본다면, 모시는 “〈山有扶蘇〉는 鄭太子忽을 풍자한 詩이니,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이다.”⁷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아름답게 쓰여진 글이 실제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문구가 나온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말이다. 주자는 음탕한 여인이 근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미치광이를 만난다고 탄식한 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택혜(澤兮)〉의 초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른 나뭇잎이여 마른 나뭇잎이여 바람이 잎을 불어 떨어뜨리리라
숙이여 백이여 날 불러준다면 너에게 화답하리라⁷¹⁾

이는 음탕한 여인의 말이다. ‘마른 나뭇잎이여 마른 나뭇잎이여. 바람이 막 너를 불어 버릴 것이요, 숙이여 백이여. 어찌 나를 부르지 않는가. 내 곧 너에게 화답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⁷²⁾ 이 시의 시 해설을 상고하면, 모시는 “〈澤兮〉는 鄭太子忽을 풍자한 詩이다.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불려도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⁷³⁾라고 하였고 주자는 음녀의 말이라고 하였다. 나뭇잎도 싱싱한 초록빛으로 빛날 때가 있는 법인데 이제 낙엽이 될 지경에 처하였으나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인생도 때가 있는 법인데 실기하지 말라는 경각으로 받아들여야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동(狡童)〉의 시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저기 간교스러운 동자는 나와 함께 말도 하지 않는구나
단지 그대 그러는 것이 나를 밥조차 못 먹게 할 것인가⁷⁴⁾

모시에 의하면 이 시는 정태자 홀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고, 그 시절에 정나라의 최대 권신은 바로 채중이었다. 그는 정장공이 죽고 태자홀과 태자돌과 태자미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고 혼란기를 겪을 때에 실력 있는 재상이었다. 여기에서 채중의 행적을 살펴보면, 『春秋』桓公11年(B.C.701)에 “9월 송인이 정나라 祭仲을 잡았다.”⁷⁵⁾ “쫓아 鄭나라로 돌아갔다.”⁷⁶⁾ “鄭忽이 衛나라로 도망하였다.”⁷⁷⁾라고 하였다. 여기서 쫓은 厲公을 말한다. 송나라가 들여보냈기 때문에 ‘歸’라고 한 것이다.⁷⁸⁾ 여기에서忽은 昭公이다. 鄭莊公을 이미 장사 지냈는데도忽을 伯이라는 爵名으로 일컫지 않은 것은 鄭人이 그를 賤視하여 이름을 기록해 통고하였기 때문이다.⁷⁹⁾ 이것이 도망을 기록한 시초였다.忽에게는 鄭을 붙이고 쫓아에게는 鄭을 붙이지 않은 것은 둘을 찬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⁸⁰⁾ 위 經文에 대한 『春秋左傳』의 기사에는 “여름에 鄭莊公이 卒하였다. 당초에 祭

70) 『시경』 「정풍」, 〈산유부소(山有扶蘇)〉, 毛序: 山有扶蘇刺忽也, 所美非美然.

71) 『시경』 「정풍」, 〈택혜(澤兮)〉: 澤兮澤兮, 風其吹女. 叔兮伯兮, 倡予和女.

72) 『시경』 「정풍」, 〈택혜(澤兮)〉, 주자주: 此淫女之詞. 言澤兮澤兮! 則風將吹女矣, 叔兮伯兮! 則盍倡予? 而予將和女矣.

73) 毛序: 澤兮刺忽也. 君弱臣強, 不倡而和也.

74) 『시경』 「정풍」, 〈교동(狡童)〉: 彼狡童兮, 不與我言兮, 維予之故, 使我不能餐兮?

75)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九月, 宋人執鄭祭仲.

76)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突歸于鄭.

77)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鄭忽出奔衛.

78)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두예주: 突 厲公也 爲宋所納 故曰歸.

79)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두예주: 忽 昭公也 莊公既葬 不稱爵者 鄭人賤之 以名赴.

의 封人 仲足이 莊公에게 충애를 받아 莊公이 그를 경으로 삼았다. 祭仲이 장공을 위해 鄧曼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하였는데 등만이 소공을 낳았다. 그러므로 장공이 죽은 뒤에 祭仲이 소공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송나라 雍氏도 딸 雍姑를 鄭莊公에게 시집보내어 厲公을 낳았다. 雍氏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宋莊公도 그를 충애하였기 때문에 祭仲을 송나라로 유인하여 잡고서 突을 임금으로 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 厲公까지 억류하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祭仲이 송인과 맹약하고서 여공을 데리고 돌아가서 임금으로 세우기로 하였다. 가을 9월 丁亥일에 소공이 위나라로 도망가니 己亥일에 厲公이 즉위하였다.”⁸¹⁾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태자홀은 앞에 언급한 문강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나 문강과의 혼인을 거부한 것 외에는 과오를 보이지 않는다.

위 시의 시 해설을 상고하면, 모시는 “〈狡童〉은 태자 홀을 풍자한 시이요, 賢人和 함께 國事를 도모하지 아니하여 權臣이 명령을 독단하여 내린 것이다.”⁸²⁾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淫奔之詩’라고 보았다. 이 시는 상대에게 절교를 당하고 밥도 못 먹고 잠 못 자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미련과 연민이 남아서 그것을 氣化시키려고 애쓰는 심정을 노래한 시로 보인다.

『시경』을 인간 정서의 ‘正’과 ‘邪’라고 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⁸³⁾ 정사와 음분한 시를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며 정시는 바른 정서를 함양하기에 필수적이다. 공자는 陽貨편에서 伯魚에게 詩(「周南」과 「召南」)를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周南」과 「召南」으로 바른 정서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한편, 음분한 시는 바른 정서에서 벗어난 좌표를 깨닫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시를 읊조리면서 正에서 벗어난 여흥을 즐길 수는 있으나 어느 각도에서 벗어났는지를 자각할 수 만 있다면 ‘正’하게 그 정서를 회복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이므로 음분한시의 가치도 존재한다.

앞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鄭風」 중 음분한 시로 구분된 시들은 일반인들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시이다. 주자는 「鄭風」을 「衛風」과 비교하였지만, 논자는 「鄭風」을 「齊風」과 음란한 정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齊風」은 〈계명(雞鳴)〉·〈선(還)〉·〈저(著)〉·〈동방지일(東方之日)〉·〈동방미명(東方未明)〉·〈남산(南山)〉·〈보전(甫田)〉·〈노령(盧令)〉·〈폐구(敝笱)〉·〈재구(載驅)〉·〈의차(猗嗟)〉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명(雞鳴)〉과 〈선(還)〉은 애공을 풍자한 시라고 모시가 말하였고, 〈저(著)〉는 모시와 주자와 여동래 등이 혼례함에 친영의 예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고, 〈동방지일(東方之日)〉은 모서에 의하면 제나라 풍속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고, 〈동방미명(東方未明)〉도 조정에서 때를 모르고 절도가 없음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그 나머지 시인 〈남산(南山)〉·〈보전(甫田)〉·〈노령(盧令)〉·〈폐구(敝笱)〉·〈재구(載驅)〉·〈의차(猗嗟)〉는 모두 제양공·노환공·노장공·문강을 소재로 한 시이다. 「鄭風」이 일반인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것을 음하다고 하나, 「제풍」이 제후와 제후의 부인의 불륜을 소재로 한 것보다 더淫하다고 할 수는 없

80) 『春秋』, 桓公 11年 庚辰 B.C.701, 임요수주: 此書齊之始 忽繫鄭而突不繫鄭 以突爲篡也.

81) 『春秋左傳』, 桓公 11年 庚辰 B.C.701: 夏 鄭莊公卒 初 祭封人仲足有寵於莊公 莊公使爲卿 爲公娶鄧曼 生昭公 故祭仲立之 宋雍氏女於鄭莊公 曰雍姑 生厲公 雍氏宗 有寵於宋莊公 故誘祭仲而執之 曰不立突 將死 亦執厲公而求賂焉 祭仲與宋人盟 以厲公歸而立之 秋九月丁亥 昭公奔衛 己亥 厲公立.

82) 『시경』 「정풍」, 〈교동(狡童)〉, 毛序: 狡童은 刺忽也요 不能與賢人圖事하여 權臣擅命也라

83) 김민중, 『孔子 詩論과 興의 정신현상』, 『중국학연구』 28, 『공자시론과 흥의 윤리적 성격』 중

다. 여기에는 「정풍」이淫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풍」의 음한 정도가 그 극치는 아니었다는 논증이다. 다만 앞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將仲子〉·〈叔于田〉·〈大叔于田〉·〈清人〉·〈有女同車〉·〈山有扶蘇〉·〈薜兮〉·〈狡童〉의 사적고찰에 의하면 정장공과 공숙단과 정태자홀과 문강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오류가 있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니, 「정풍」의 인물들에 대한 文辭가 샅되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孔子는 鄭聲을 ‘淫’하다고 하였고 이것은 반드시 방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Ⅲ. 結 論

정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서 각국의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였다. 그리고 주나라 평왕이 동천할 때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尊周意識을 보인 나라이다. 그러나 공자는 鄭聲을淫하다고 하였으므로 본 논문은 鄭風을 正詩와 ‘淫奔之詩’로 구분하고, 그 밖의 사적고찰이 가능한 시는 그 배경을 살펴서 시의 正邪라는 측면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여 보았다.

상문에서 〈緇衣〉·〈羔裘〉·〈女曰鷄鳴〉·〈出其東門〉이 안성유씨에 의하여 옥 같은 시로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정풍」이 비록 음분한 시가 많았다고 하나 그 중에 몇 개의 시는 15개의 국풍 중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제외한 諸風과 비교하여 더욱 음분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시경』 「정풍」의 시는 21개 중에 앞에서 다룬 네 개의 시를 제외하고 사적 고찰이 가능한 시는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청인(淸人)〉·〈유녀동거(有女同車)〉·〈산유부소(山有扶蘇)〉·〈택혜(薜兮)〉이다. 그 중에 〈장중자(將仲子)〉·〈숙우전(叔于田)〉·〈대숙우전(大叔于田)〉은 정장공과 공숙단을 소재로 한 시이고, 〈청인(淸人)〉은 정문공이 정치를 잘못된 것을 풍자한 시이고, 〈유녀동거(有女同車)〉는 문강의 단아함을 노래한 시이고, 〈산유부소(山有扶蘇)〉·〈택혜(薜兮)〉·〈교동(狡童)〉은 모시가 정태자홀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이들의 시의 문사를 재해석하고 재해설하여 역사성을 고려한 결과 정장공·공숙단·정태자홀·문강에 대한 시 표현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正詩와 역사적 고찰이 가능한 시를 뺀 나머지 〈준대로(遵大路)〉·〈건상(褰裳)〉·〈봉(丰)〉·〈동문지선(東門之墠)〉·〈풍우(風雨)〉·〈자금(子衿)〉·〈양지수(揚之水)〉·〈야유만초(野有蔓草)〉·〈진유(溱洧)〉는 ‘淫奔之詩’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鄭風」 중 음분한 시로 구분된 시들은 일반인들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시이다. 그래서 잠시 「齊風」과 이 시들을 비교하여 본다면, 「齊風」의 〈계명(雞鳴)〉과 〈선(還)〉은 애공을 풍자한 시라고 모시가 말했고, 〈저(著)〉는 모시와 주자와 여동래 등이 혼례 함에 친영의 예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고, 〈동방지일(東方之日)〉은 모서에 의하면 제나라 풍속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고, 〈동방미명(東方未明)〉도 조정에서 때를 모르고 절도가 없음을 풍자한 시라고 하였다. 그 나머지 시인 〈남산(南山)〉·〈보전(甫田)〉·〈노령(盧令)〉·〈폐구(敝笱)〉·〈재구(載驅)〉·〈의차(猗嗟)〉는

모두 제양공·노환공·노장공·문강을 소재로 한 시이다. 「鄭風」에서 일반인의 남녀상열지사를 읊은 것을 음하다고 보아도 「제풍」이 諸侯와 諸侯의 부인의 불륜을 소재로 한 것보다 더 ‘淫’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제풍」이 ‘淫’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풍」의 음한 정도가 그 극치는 아니었다는 논증이다.

다만 앞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將仲子〉·〈叔于田〉·〈大叔于田〉·〈清人〉·〈有女同車〉·〈山有扶蘇〉·〈蓼兮〉·〈狡童〉의 사적고찰에 의하면, 정장공과 공숙단과 정태자홀과 문강 등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오류가 「정풍」에 샅되게 표현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러한 샅된 표현이 세속을 어지럽히고 인류에게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공자는 鄭聲을 ‘淫’하다고 하였다고 보았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종류로써 이 ‘邪’를 방비해야 하며, 『시경』을 한 마디로 덮어 말한다면 ‘思無邪’라고 한다는 명제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詩經』

『春秋』

『論語』

『詩經集傳』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左傳詳節句解』

『근사록』

정태현 역주, 『역주 춘추좌씨전』, 전통문화연구회.

원형갑, 『시경과 성』, 한림원, 1994.

서정기 역주, 『새시대를 위한 시경』, 살림터, 2001.

진래 지음, 진성수·고재석 옮김, 『중국고대사상문화의 이해』-춘추시대의 종교 윤리와 사회사상- 성균관대학교유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 학술원, 2008.

安秉均, 「雉鳴 및 그 象徵을 통하여 본 詩經 關雎詩 性格考」, 『시경연구』 1, 1999.

문승용, 「『詩經』에 나타난 祭禮意識 考」, 2006.

김민중, 「孔子 詩論과 ‘興’의 정신현상」, 『중국학연구』 28.

李康範, 「鄭玄 『모시정전』 석예와 시경학상의 공헌」, 『시경연구』 1, 1999.

安春紛, 「『春秋』의 다양한 批判見解를 통해본 春秋時代精神」, 『동양철학연구』 65, 2011.

安春紛, 「『春秋』의 ‘大義滅親’에 대한 孔子의 大義親親的 입장」, 『유교사상문화연구』 41, 2010.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Meaning of Obsceneness in 「Odes of Zheng(鄭風)」, 『Classic of Poetry(詩經)』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hn, Choonboon*

The State of Zheng is the first nation tha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ransfer of the capital when King 'Ping' of Zhou Dynasty moved its capital to the east and displayed its spirit to honor 'Zhou'. However, Confucius said in the 「Duke Ling of Wei(衛靈公)」, 『the Analects of Confucius』, that lustful songs(鄭聲) were obscene(淫). Since then, posterity scholars had a great diversity of opinions about this. Zhu Xi sai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relative importance when it was said that 「Odes of Zheng(鄭風)」 was obscene, compared to 「Odes of Wei(衛風)」. He argued that for the first reasons why it was lewd, in terms of quantity, five sevenths of the poems in 「Odes of Zheng」 were wanton while one fourth of those in 「Odes of Wei」 were so. For the second reason, he mentioned that there were many poems in which a woman lures a man. For the third ground, he concluded that 「Odes of Zheng」 was more lustful than 「Odes of Wei」 in that many contents in 「Odes of Wei」 were repentances and satires, but 「Odes of Zheng」 didn't show the indication of repentance. After that, Ahn Seong-yu agreed to Zhu Xi's theory in principle.

In spite of existing the elder confucianists' writings on 「Odes of Zheng」, the meaning of Confucius' works claiming that the lustful songs were especially obscene is not clear, and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all the poems in 「Odes of Zheng」 as the research object, reinterpreting each poem, and investigating into the meanings of obscenity adding historical review. In this paper, the poems in 「Odes of Zheng」 were categorized into proper poems(正詩), improper ones and those that can be studied in a historical viewpoint, their expressions were reinterpreted, and were examined the reasons why the lustful songs were regarded as obscene while preceding scholars' explanation were referred to.

The poems, such as 〈Ziyi(緇衣)〉, 〈Dafu's ceremonial dress(羔裘)〉, 〈A woman says a cock crows(女曰鷄鳴)〉 and 〈Leaving from the eastern gate(出其東門)〉 from the above books were classified by Ahn Seong-yu as the valuable poems. They say many poems in 「Odes of Zheng」 are

* Ph.D., Sungkyunkwan University

obscene. However, when compared with other odes, there are the poems close to the proper ones so it's not reasonable to consider them as more lustful. Next, among the 21 poems of 「Odes of Zheng」, 『Classic of Poetry』, those which can be exam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were extracted. Among which, 〈The second bachelor(將仲子)〉, 〈A brother-in-law's hunting(叔于田)〉, and 〈The third son's hunting(大叔于田)〉 are the poems with the material of 'Zheng Zhuang Gong' and 'Gong Shu Duan'. 〈A person of Ching(清人)〉 sings about Zheng Wen Gong's political faults, and 〈A woman on a wagon(有女同車)〉 about Wen Kang's elegance. Fusu flowers in the mountains(山有扶蘇), 〈Dry leaves(摽兮)〉 and 〈A sly kid(狡童)〉 are the poems that 'Mosi' was a stinging satire on the crown prince, 'Hu' of the state of Zheng. When the expressions in these poems were reinterpreted, re-explained, and their historicity was considered, it was found out that the poetic expressions regarding 'Zheng Zhuang Gong', 'Gong Shu Duan', the crown prince 'Hu' of the state of Zheng, and 'Wen Kang' were biased.

The rest poems except those which are proper or on which historical review is possible, such as 〈On a main road(遵大路)〉, 〈Rolling up the skirt(褰裳)〉, 〈Pretty(丰)〉, 〈The vacant ground outside the eastern gate(東門之墀)〉, 〈The wind and rain(風雨)〉, 〈Your attire(子衿)〉, 〈The water bubbling up(揚之水)〉, 〈Vine grass in the field(野有蔓草)〉 and 〈Jin and Yu river(溱洧)〉 can be seen as wanton. Those categorized as obscene among 「Odes of Zheng」 sings about ordinary persons' love between male and female. Therefore, when these are briefly compared with the poems in 「Odes of Qi」, those in 「Odes of Zheng」 about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were said to be lustful, but cannot be regarded as more wanton than the one in 「Odes of Qi」 dealing with the affair between a feudal lord and a woman. At this point, the argument is not to insist on the obscenity of 「Odes of Qi」, but to emphasize that the degree of obscenity of 「Odes of Zheng」 was not extreme.

Yet, it can be concluded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storical review in the precedent chapter, Confucius assessed them as lustful because the errors in the evaluation of the figures of 'Zheng Zhuang Gong', 'Gong Shu Duan', the crown prince 'Hu' of the state of Zheng, 'Wen Kang' and etc. were expressed as impious in 「Odes of Zheng」. When it's said to be obscene, it doesn't just mean that it's wanton, but the meaning should be expanded into slyness(邪), or injustice of going against what's right(不義 or 不正), and then it can accord with its original meaning.

[Key Words] 『Classic of Poetry』 : 詩經, 「Odes of Zheng」 : 「鄭風」, obscenity : 淫,
no slyness in thoughts : 思無邪, proper poems : 正詩

